

지역 국제화 추진검토 위원회의 보고에 관하여

지역 국제화 추진검토 위원회는 작년 12월에 ‘재해 시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-동일본 대지진 경험을 바탕으로-’에 관하여 도쿄도 생활문화국장이 의견을 물어와 검토를 거듭해왔습니다. 오늘 개최된 동 검토 위원회에서 별지와 같이 보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보고의 포인트

1 동일본 대지진 시의 외국인 상황

(1) 지진 발생 시의 상황

- 동일본 대지진에서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하고 공황상태에 빠진 사람이 많았다.
- 교통기관이 마비되고 역내 안내방송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었다.
-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가족에게 무사함을 전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.
- 정보는 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다.

(2) 지진 발생 후의 상황

-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국 가족의 권유 등으로 1/4의 외국인이 귀국하였다. 대피, 이사, 귀국 등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약 60%로 귀국한 사람보다 체류기간이 길었다.
- 필요한 정보는 지진 정보와 함께 원전 사고 정보, 물이나 식량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, 계획 정전 예정 등의 생활정보였다.
- 원전 사고 등에 관한 전문용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많은 외국인이 정보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다.

2 명백해진 과제

- (1)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도쿄도와 시구정촌, 외국인 지원단체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재에 관한 계몽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,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.
- (2)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지진 정보나 행정용어는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.
- (3) 도쿄도와 시구정촌, 외국인 지원단체의 정보제공 수단은 홈페이지나 리플릿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, 외국인 사이에서는 SNS 등의 수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.
- (4) 방재(어학) 자원봉사자는 재해 발생 시에 대피장소 등에서 통역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지만, 그 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검토와 평상시의 활용이 미흡하다.
- (5) 다양한 정보가 난무하는 재해 발생 시에는 올바른 방재 지식에 근거하여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지만, 외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이러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.

3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

- (1) 기획단계부터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알기 쉬운 일본어’를 사용한 홍보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
- (2)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배포하거나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 홍보
- (3)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
- (4) 방재(어학) 자원봉사자를 트위터에 게재하는 정보의 번역, 시구정촌에서 실시하는 방재 훈련이나 방재 강좌의 통역 등에 활용
- (5) 평상시부터 방재 의식의 향상을 위해 지역 축제 등에서 방재 훈련을 하는 등 즐기면서 방재를 배울 수 있는 이벤트에 참가 촉진

【참고】 지역 국제화 추진검토 위원회란

도교를 외국인도 살기 편하고 활약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일본인과 외국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